

●연중 제 33주일 강론

평신도 주일

어느 본당엘 가든 착한 교우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듯 착한 교우분들 때문에 사목생활에 활기가 있고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새벽 추위를 가르고 이른 아침 어두운 성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성당의 온갖 곳은 일들을 불평 없이 묵묵히 하시는 분들, 사제의 개인 감정에서 폭발한 꾸중도 자신의 부덕인양 참아 받으시는 분들, 자신의 귀한 물건과 선물은 먼저 본당 신부님에게 드려야 마음이 편한 분들, 본당 여러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 하시면서도 교우들의 참여도가 영 부족하다 싶으면,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송구스럽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감사의 작은 금액을 내 놓으면서 겸연쩍어 하시고 죄스러워 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 덕분에 사제가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때문에 ‘사제를 성인으로 만드는 것은 평신도요, 교우들을 성인으로 만드는 것은 사제이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또한 ‘사제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사제의 양식인 기도는 거의 대부분 교우분들에게서 얻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일반 신자들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속한 종교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희생하며 봉사하여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보는 경우가 없는 것이 일반 신도들의 불이익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돌아보면, 그분들은 겨우 얻은 휴식을 반납하여 교회에 봉사하고 있으며,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면서도 교회 일에는 헌신의 봉사를 하며 하느님 나라를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정 사목자들이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도 많은 위로와 격려, 영적 목마름에 갈망하는 착한 교우분들께 늘 무엇인가를 채워주어야 할 사명이 사목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측은지심의 눈길로 교우분들께 다가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느님의 기적과 사랑의 승리를 온 몸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희망의 말씀을 우선 사목자들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본당에서 사목을 하다보면 여러 부류의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사목을 돕는 분들, 늘 성당 주변을 뒹뒹며 사사건건 간섭을 하며 불평을 하는 이들, 주일만 겨우 지키며 무관심으로 일관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성당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관심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교회는 평신도들의 열정적인 손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구원 사업에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기에 사도들을 파견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은 하느님의 일이란 자각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보다 나은 하느님 나라를 위한 파궤한 충고와 격려를 교우들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가꾸고자 동분서주 바쁘게 뛰었던 사도 성 바오로에게도 여러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력 가운데 끊임없는 반대자들의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그 중 바오로 사도의 근심거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무리들의 책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의 일을 하지 않고 불평불만 속에 사람들을 이간시켜 평화로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하였습니다.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2테살 3, 11).

바오로 사도의 시대나 오늘날에나 본당 일에 협조는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사목자를 괴롭히며 교우들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오로는 파궤한 일침을 놓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2테살 3, 10).

여기에서의 일은 세상의 일일 수도 있고, 하느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충실한 이들이 하느님의 일에도 충실하며, 하느님의 일에 충실한 이들이 세상일에도 충실한 법입니다.

그러한 성실한 이들은 영육의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 사도의 말씀대로 먹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 나라가 이 지상에서부터 건설 되도록 열심히 일해야 할 하느님 나라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광하 신부 <춘천교구 계제마니 피정의집원장>

힘들었지요?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커서 힘들었을지도 모르고 무서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거나 돌봐주지 않아서 치절한 울음을 삼킨 적도 많았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화를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 그 화에 끌려 다닐 것입니다.

과거에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화는 당신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어느 순간 화가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분에 못이겨서, 그이와의 애증 때문에…등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 내면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누군가 다가와 ‘힘들었지?’ 하며 어깨를 감싸는 순간, 모든 것은 눈 녹듯 사라지고 평화의 기운이 온 몸을 휘돌기 시작합니다.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 11월 위령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으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 기도합니다.
-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주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트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미사시간 변경 안내

오는 12월 2일 첫 주일 부터 미사시간이 현재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로 한 시간 늦어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울뜨레야 모임

오늘 미사후 제의실에서 있습니다

● 매일미사책 신청접수

2008년도 1년 정기구독을 신청 받습니다. 희망자는 박재영 선교부장에게 구독료 \$48을 12월 2일까지 필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선볼링클럽 안내

매년 동절기 마다 교우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되어온 친선볼링클럽이 새롭게 다시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12월 3일~2008년 3월말 까지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Brunswick Bowling Centre (전년과 동일) 키치너 Frederick Mall 내 위치
- ▶문의: 윤명원 행사부장

● 첫영성체 교리반

- ▶대상: 3 학년 이상 어린이
- ▶수업기간:11월25일 부터 부활 전주 까지
- ▶수업시간:매 주일 미사전 2시 40분 부터
- ▶문의: 장연희 세실리아 자매(519 580 1115)

● 합창단 초청 음악회 티켓 판매

환상의 화음으로 정평이 나있는 K-W 경찰 남성합창단과 주니어 합창단(Bluevale Chamber Choir)이 St.Anthony Daniel 현지성당의 친교실 건축자금 마련을 위해 초청음악회를 갖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성당의 행사에 많은 협조바랍니다.

- ▶시간: 12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St. Anthony Daniel 성당
- ▶티켓가격: 개인-\$10(18세 이상),가족-\$25(부모+18세 이하 아이들)
- ▶티켓구입문의:이명희 관리부장

● 바뇌기도회

11월 28일(수) 오후 7시30분/ 박용대 형제집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 분실물& 습득물

이명희 관리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미사전에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인사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 따스한 말 한 마디가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 주간 전례

- ▶11월20일(화) 오후 8시, 연중 제 33주간화요일
- ▶11월22일(목) 낮 12시, 성녀체칠리아기념
- ▶11월22일(목) 오후 8시, 성녀체칠리아기념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평신도로써의 의무와 권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미사와 기도를 바쳐주십시오. 위령성월에는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분이라도 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2007-46

2007. 11. 18.

연중 제 33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 례

해 설 |이우원 |차주 해설 박인선

화 답 송 | 주님, 제가 깨어날 때 주님 모습으로
흡족하리이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노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69) 지극히 거룩한 성전
봉 헌 (513) 면병과 포도주
성 체 (160) 하느님의 어린 양
되 장 (463) 순례자의 노래

독 서

11월 18일 노원균 노숙희
11월 25일 이명희 이상희
12월 2일 김영삼 김정현

봉 헌

11월 18일 노재현 노정은
11월 25일 노원균 노숙희
12월 2일 이명희 이상희

복 사

11월 18일 경은 지현
11월 25일 하람 한힘
12월 2일 지홍 현재

2007년 11월 11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750.00
교무금:	\$ 50.00
Total:	\$ 800.00